개인의 삶, 인류 역사의 핵

오직 '나' 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우리의 삶을 대립과 갈등의 극한으로 치닫게 하고, 고도의 물질문명은 사람들을 '탐욕의 노예' 로 만들고 있다. 이제는 '나' 를 찾아야 한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우리' 의 삶이 건강해지고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가 건강해 질수 있다. 부처님의 삶이 그것을 말해준다. 오계, 자비봉사, 참회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 를 먼저 바꾸자!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를 좇아 생각하고 행동하려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본성이 자기중심적 사고로 치우치면 결국 가족, 사회, 국가의 건강을 좀먹게 된다. 실제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사기 권력형비리' 같은 모든 아귀다툼은 인간 본성을 통제하지 못하는데서 출발한 악업이다.

'죽이지 말라(不殺生) 훔치지 말라(不偸盜) 음행하지 말라(不邪淫) 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 술먹지 말라(不飮酒)' 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불자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할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규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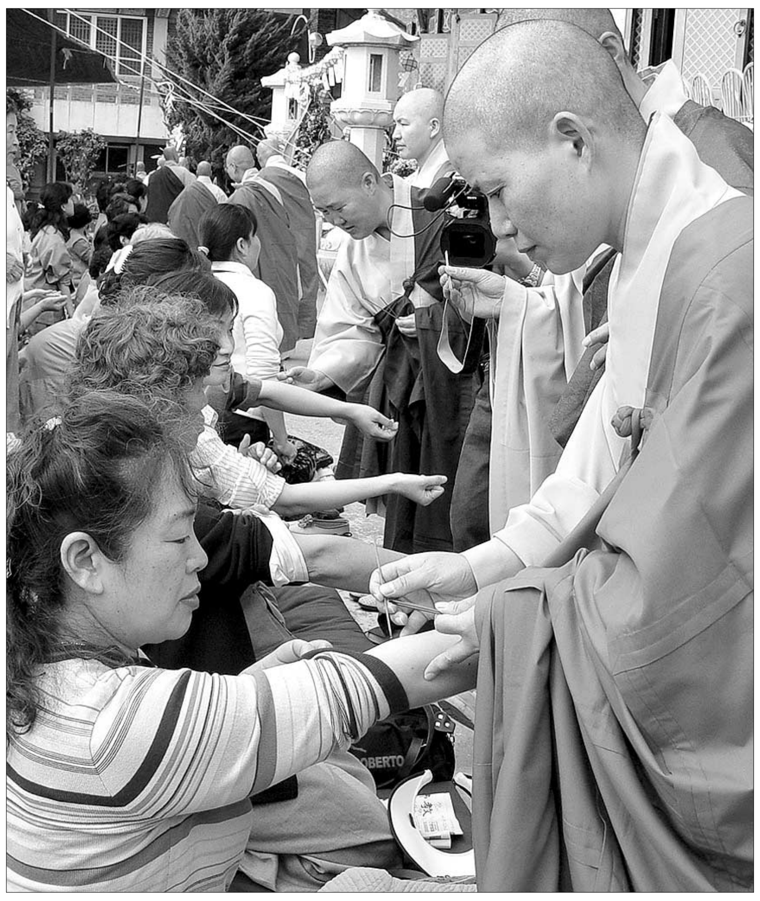
생활속의 큰 깨달음- 오계 지키기

지난 2003년 5월에 실시한 본지 설문조사에서 불자들의 계행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진정한 불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불자들이 계행의 실천을 불교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 계행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불자들조차 오계를 지키기 부담스러워 할 정도라면 하물며 일반 국민 개개인은 어떻겠는가?

12월 중순 경기도 모 사찰의 수계법회에서 만난 정선화(33) 보살은 "오계 가운데서도 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한다. 6년 전 계를 받았다는 정보살은 "그냥 착하게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생활 하다보면 그게 잘 안된다"며 쑥스러워 했다. 또, 자녀들의 권유로 이날 수계식에 참가한 권혁길(63) 거사는 "계를 받은 것이 기쁘기는 하지만 막상 이 나이에 5계를 지키며 살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불안한 심경을 토로했다. 불자들에게 마저도 오계는 경계와 구속의 의미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국대 목정배 명예교수는 "오계를 지키기 어렵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목 교수는 "'정견(正見)' 을 가진 이라면 오계 정도는 불자던, 비불자든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오계를 '생명을 존중하라, 아낌없이 베풀어라, 청정하라, 진실을 말해 성공하라, 맑은 마음을 지켜라' 는 긍정적인 의미로 바꾸어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오계는 누구나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오계의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우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 견해' 를 가지고 '나'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데서 '우리' 라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나가야 한다. 오계는 '구속' 이 아닌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지침' 이기 때문이다.


오계를 구속이 아니라 내삶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깨달음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사진은 수계법회에서 연비하는 불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삶을 가꾸자- 복은 짓는 자의 것

우리는 물질과 외형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데는 인색하다. 자연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다. 더욱이 종교마저도 단순히 자신과 가족의 복락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10년째 아이가 없는 큰 아들의 득남을 위해 산신각에서 기도를 한다"는 김순희(68) 보살. "고3 아들의 명문대 합격을 위해 100일 기도를 했다"는 최정희(45) 보살. 남편의 사업번창을 위해 매일 염불을 한다는 정한숙(56) 보살.

이처럼 불자들조차 맹목적으로 부처님께 '~을 이루어 달라' 는 기복신앙에 매달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에게서 불교의 본래 목적인 자아 성찰과 진리탐구는 멀게만 느껴진다.

본지가 2003년 5월, 재가 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앙형태에 관한 설문조사(421호)에 따르면 5 · 60대 불자 중 67%가 종교에 대한 이성적 신앙보다 무조건적인 기복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그러나 정토회 대표 유수 스님은 "맹목적인 기복은 '우리 자신이 본래 부처다' 고 설한 부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누구나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미래의 행복도 결정된다는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건국대 성태용 교수는 '복(福)채점표' 를 만들어 볼 것을 권유한다. 복 채점표란 일정 단위의 재화나 노력을 어떤 복을 짓기 위한 일에 썼을 때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복을 다시 일정한 단위로 표시한 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불우이웃돕기는 몇 점, 마을 입구 청소는 몇 점 등의 식이다. 불자들의 경우는 신행관련 항목을 추가하면 된다.

안양시청에 근무하는 김현숙(48) 보살은 "불자라고 말하면서도 누가 불교에 대해 물어보면, 말끝을 흐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알것 같아요. 공부하지 않는 이상 깨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라며 오늘도 퇴근 후 불교대학 강의실로 향한다.

또 국토개발원 김의식(56) 거사도 10년 동안 일기를 쓰듯 자신의 신행일지를 꾸준히 작성하고 있다. 김 거사는"매일매일 내 삶을 점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신행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자기 반성의 계기도 마련된다"며 뿌듯해 했다.

■ 매일 나 자신을 점검하자 (신행지수 체크표)

보다 풍요한 삶을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까? 일상 생활의 점검표를 만들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항상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켜보자.

항 목	점수(10점 만점)
계를 받았습니까?	
헌혈 · 장기기증을 실천하십니까?	
생명이 있는 것을 이유 없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보시를 하고 있습니까?	
도박, 오락, 경마, 게임 등을 즐겨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거짓된 말,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까?	
노력에 비해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배우자와 진실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며 칭찬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몸과 정신을 해치는 술과 담배 등을 자제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이상의 수행법을 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매일 한 가지 이상 선행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부모나 자녀 등 가족들을 짜증없이 대하려 노력합니까?	

각 항목당 점수는 10점입니다. 0~10점 으로 자신의 생활을 체크하세요.

■0~40 자신을 돌아보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세요.
■41~70 중생심이 아직은 앞서는 분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71~100 상당한 근기입니다. 더욱 정진하세요.
■101~130 상근기입니다.

※도움말씀 주신분 : 효천(화방사 주지) 우학(영남불교대 관음사 회주) 유수(정토회 대표) 스님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 성태용 (건국대 교수)

아낌없이 베풀자- 육바라밀 실천을

각박한 세상이다. 장기화된 경제불황으로 얇아진 것은 지갑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부모가 한밤 중 야산에 버려지고,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간다. 하지만 전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나만 건강하고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 는 식의 이기주의는 '나 살기도 힘들다' 는 당위(?) 앞에 묘한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아직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행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다.

불교계에서는 사찰별로 구성된 봉사팀이 인근의 독거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들의 생활을 돕고, 포교사단과 불교대학 등의 신행봉사팀은 지역복지관, 군부대 등과 연계해 물품지원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또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와 대한민국경찰불교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등 많은 직장불자들이 바쁜 직장생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 을 만들기 위한 갖가지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밖에 20년째 지역 복지관에서 도시락봉사를 하고 있는 서울 구룡사 강희예(45) 보살,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자광원 등에서 목욕 및 빨래봉사를 하고 있는 용인 수지포교원 김연희(36) 보살 등 많은 불자들이 지금 이시간도 생활과 봉사를 하나로 실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원봉사나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참여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성인의 48%가 주당 4.3 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호주 역시 15세 이상 인구의 19%가 공식적인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국민들은 불과 10% 미만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의 기부문화에 있어서도 2003년 미국의 기부금은 241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8% 수준이지만, 우리의 경우 2003년 한 해 동안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 14곳의 모금기관에서 모은 돈은 4256억원으로 GDP의 0.06%에 불과했다.

강희예 보살은 "강남이라면 부자동네인줄 알지만 의외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많습니다. 한 끼 도시락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들을 보면서 남을 위한 마음과 하심의 중요성을 배워요"라며 남을 위한 삶이 갖는 보람과 봉사의 참의미를 일깨웠다.

이에 대해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참다운 삶을 위해서는 나와 가정의 복을 기원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의식과 마음을 깨워 봉사행 등의 행동과 실천, 수행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수 · 김은경 · 노병철 기자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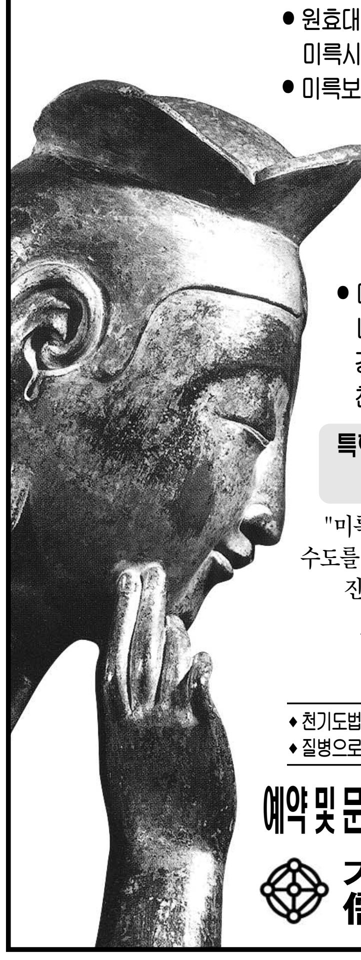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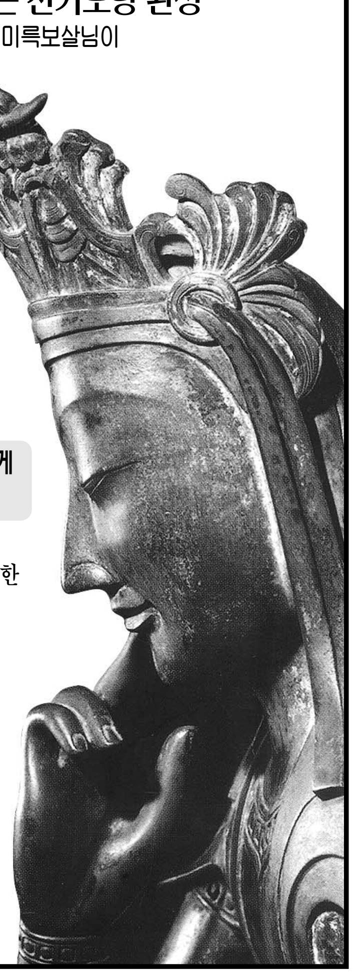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